

# 영산강 하구둑 체증 단계적 해소

전남도, 연동제→차로 확대→대체 교량 추진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조선산업 활황으로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극심한 목포~영암 삼호 영산강 하구둑 구간의 교통 체증이 단계적으로 해소된다.

영산강 하구둑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이 대불산단에 입주하는 등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융과를 드러내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신호 주기 연장 및 연동제를 완료했다. 또 목포해양항만청 사거리 하구둑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차로를 확대하고 하구둑 차량 제한속도도 기존 시속 70km에서 80km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목포해양항만청 사거리·대불삼거리

의 좌·우회전 차로 추가 신설, 하구둑 중앙분리대 철거 후 좌회전 대기차선 500m로 연장, 목포해양항만청 사거리에서 하당·옥암지구 좌회전 금지 토토록 차로를 통행개선, 대불산단 나불삼거리 우회전 전용차로 추가 신설 등을 미루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3단계 항구적 개선책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3km의 영산강 하구둑 대체 교량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 농·수·특산물 수도권 판촉 대공세

완도·강진·장성·신안·영암 등 행사 다채

완도군을 비롯한 전남지역 자체들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대체적인 농·수·특산물 판촉에 나서고 있다.

완도군은 24일부터 5월1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4개점에서 완도 수산물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24~4월 2일)을 시작으로 잠실점(28일~4월 3일), 본점(4월 4일~10일), 노원점(4월 14일~20일), 노원점(4월 25일~5월 1일)에서 차례로 열린다.

완도군은 지난 15일 롯데호텔과 완도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대도시 수산물 판촉에 적극 밟았고 나섰다.

강진군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제 1회 강진군 농수특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평'

등을 비롯해 과채류, 베ет류, 죽·수산물, 융전 청자골 토하, 훑어김치 등 29개 업체, 175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지부장

박광호)와 장성군도 장성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지난 26일 삼계농협 APC(산지유통센터)

에서 '장성농산물 마케팅 세일즈단'

결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신안군은 천일염 축제를 통해 천일

천일염 축제

고 천일염 시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장성 세일즈단은 오는 4월 초 서울 농협양재유통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365생 수도권 런칭식'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시장에 대한 본격 개척에 나선다.

신안군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된 것을 기념해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계적 명품소금 신안 천일염 축제'를 개최했다.

신안군은 천일염 축제를 통해 천일

염의 날을 선포하고 솔트(Salt) 로드 쇼를 비롯해 천일염 흙보관과 신안 천일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개설했다.

영암군도 지난 25·26일 이틀간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농특산물 5천만원 어치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신안=조원남기자 wncho@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복열(54) 신임 나주경찰서장은 "범죄와 각종 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순 출신인 류서장은 전남대와 원광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지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주민 감동 치안 서비스 펼치겠다"

양성진 영광경찰서장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

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 "명품 나주배 '배 닉터'가 책임집니다"

생산~출하 전문가가 기술 지원

나주시가 명품배 육성을 위해 과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배 재배농가에 맞춤형 영농기술을 전달할 '배 닉터제'를 시행한다.

나주시가 명품배 육성을 위해 전문가의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가가 생산에서 출하까지 전 과정에 대해 영농기술 지원과 자문을 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집합교육식 기술지도

가 1대 1 기술지도를 통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나주시는 우선 농업현장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배 선도농가와 배원협 지도사 등 20명을 선발, 컨설팅팀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뒤 이들에게 농가 4~5곳씩을 맡길 계획이다.

배 닉터 육성에는 전남대 배 특성화사업단과 농촌진흥청 배 시험장 등

친 전문가들이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배 닉터 육성에도 주력, 올 연말까지 40명선으로 확대한 뒤 점차 2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컨설팅 지원대상은 농협과 수출 출하 등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우선 선정한 뒤 컨설팅 비용 300만원 가운데 80%는 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 지역은 3천100여농가가 3천ha의 배를 재배, 전국 생산량의 20%인 연간 7만t을 생산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주민 감동 치안 서비스 펼치겠다"

양성진 영광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 정보보안과장, 경기 안양서 정보보안과장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성진(54)씨와 2남이 있다.

양성진(46) 신임 영광 경찰서장은 "주민감동 치안서비스로 환영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함평 출신으로 지난 85년 경찰대학(1기)을 졸업하고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 지방경찰청 정보계장, 광주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영주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 세 얼굴

"범죄 최소화 시민생활 안전 확보"

류복열 나주경찰서장

난 1981년 학사 경사로 경찰에 입문해 경기청 정보통신과장과 경기 분당서